노인의 성격특성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정 종 현
조교수 최 수 일

Department of Gerontology, Hoseo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Jong Hyun Jeong
Assistant Professor : Soo Il Choi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nfluential relation among personality trait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the conceptual variables according to demographic factor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anuary 10 to February 20 in 2011, and the participants were 282 seniors over the age of 60 in Gangwon province areas. As a result, the personality traits of the elderly were classified into openness,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neuroticism, and extraversion. There were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sonality trait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factors. The personality traits such as openness,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 and extraversion had a positive impact o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of positive life. The neuroticism of personality traits had a negative impact on satisfaction of positive life, while it had a positive impact on satisfaction of negative life.

주제어(Key Words) : 성격특성(personality traits), 자아존중감(self-esteem),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Soo Il Choi, Department of Gerontology,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9 Seocho-dong, Seocho-gu, Seoul, 137-867, Korea Tel: +82-2-523-3015 Fax: +82-2-2055-1405 E-mail: sichoi47@hoseo.edu

Ⅰ. 서 론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도의 산업화 · 도시화, 가족제도의 핵가족화 및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로 인해 노인문제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년기에는 장년기까지 두드러지지 않던 신체적 변화에서부터 은퇴와 더불어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인 불안정, 사회나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에 따른 심리적 문제의 축적으로 인해 성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독과 외로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Jeon, Jang, Rhee, Kawachi, & Cho, 2007),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인 우울감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서희숙, 한영현, 2006). 이에 따라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질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들이 삶에 대응하는 방식은 개인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화된 이론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한 개인의 성격특성은 생물학적 · 사회학적 특성들보다 심리적 · 행동적 특성들과 관계되고, 전 생애를 통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일관성과 규칙성을 가진다. 하지만, 연령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역할과 경험으로 인하여 새로운 성격형태를 얻게 되어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연령 단계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반응(김현진, 이귀옥, 1992)하기 때문에 노인의 삶의 질을 논하는데 있어 성격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노인의 성격특성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김지현, 민경환, 2010; 노은이, 2004; 장휘숙, 2009; Chapman, Duberstein, & Lyness, 2007)에서는 성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정서나 태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성격특성,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정서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Costa와 McCrae(1980)에 의하면 인간의 성격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주관적 행복감을 결정짓고, 개인이 지닌 성격특성은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5요인으로 구분된다(McCrae & Costa, 1997). 이러한 성격특성의 측정척도는 국내 노인에게 적용하여 타당도가 검증(김선영 외, 2010)되었으나, 성격 5요인에 관한 많은 연구(김동일, 홍성두, 인효연, 2006; 서경현, 김정호, 유제민, 2009; 이채은, 이진영, 2010)들이 청소년이나 대학생, 특정 직업군을 실증 분석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성격특성을 분류한 연구(박민애, 2001; 정윤경, 2010)에서는 Shanan(1985)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적극적 통합형, 의존적 수동형, 실패 과정형 및 자기 부정형으로 나누어 심리적 안녕감이나 생활적응 및 만족도 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성격 5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시대 변화에 둔감하고 새로운 것을 익히는데 거부감이 강한 전통적인 노인상과 달리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정년퇴직 후에도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성향이 높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원하는 등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에 개인적 · 독립적인 가치를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아직도 장년기의 모든 노력과 경제력을 자녀 양육에 쏟아 붓거나 노후대책이 없는 가운데 노년기를 맞이하여 신체적인 건강 악화, 심리적인 상실감, 경제력의 상실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부재, 은퇴, 이혼 등으로 인해 성격이 변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지고 삶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는 노인들도 많다(김주성, 최수일, 2010). 그러므로 노인의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 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이 지니고 있는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개인적 · 사회적으로 노후의 삶을 설계하거나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노인의 성격특성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인의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성격특성,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노인의 성격특성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노인의 성격특성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고찰

1. 노인의 성격특성

Neugarten(1968)은 노년기가 되어 성격이 급격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일관된 성격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노년기의 성격특성을 외향적, 긍정적인 성격을 지닌 통합형, 성취지향적이며 엄격한 자기통제와 노력으로 노후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방어형, 자신의 욕구를 가족, 주위 사람들에게 강하게 의존하는 수동적 의존형, 정서적 반응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인지적 결함을 나타내는 와해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발전시킨 Shanan(1985)의 연구에서 노인의 성격특성은 적극적 통합형, 의존적 수동형, 실패 과정형 및 자기 부정형으로 구분되었다.

Eysenck(1967)은 잘 통합된 성격이 노년기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가장 좋은 지표라고 하면서 외-내향성(E-I: extraversion-introversion), 신경증적 경향성(N: neuroticism), 정신병적 경향성(P: psychoticism)으로 구성된 성격이론을 발표하였고, E가 높은 사람은 사교적이고 친구가 많으며 충동적, 낙천적인데 비해 N이 높은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였다(유희정에서 재인용, 1987).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Costa와 McCrae(1980)는 NEO(Neuroticism · Extraversion-Openness)모델을 제시하였는데, E(외향성: 사회성, 활기, 사회적 개입)는 긍정적 정서와 N(신경증적 경향성: 불안, 적응, 충동성, 정신 신체적 질병)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고, 긍정적 · 부정적 정서가 균형을 이룰 때 주관적인 행복감을 느끼게 되므로 성격특성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어떤 사람의 성격특성을 알면 10년 후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느낄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McCrae와 Costa(1987)는 5요인 모델(FFM: five-factor model)을 통해 성격특성을 신경증(N: neuroticism), 외향성(E: extraversion), 개방성(O: openness), 친화 대 분노(A: agreeableness vs. antagonism), 성실 대 불성실(C: conscientiousness vs. undirectedness)로 분류하였고, 독일인, 포르투갈인, 유대인,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McCrae & Costa, 1997)에서는 성격특성이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5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여 이 성격특성구조가 보편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5요인 모델은 많은 연구(Block, 1995; DeRaad & SzirmAk, 1994; Lynam & Widiger, 2001; Miller & Lynam, 2003; Samuel & Widiger, 2008; Saulsman & Page, 2004)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Chapman 외(2007)은 5요인 모델을 적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성격특성의 수준에 따른 건강한 삶의 인식차이를 검증함으로써 성격특성과 건강한 삶과의 관련성을 밝혔다.

국내 연구에서 노인의 성격특성은 다양한 척도를 활용하여 분류되고 있는데, Costa와 McCrae(1980)의 NEO모델을 토대로 한 유희정(1987)은 5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성격차원검사와 노인생활적응도 질문서, 절망감척도, 행복감 평정척도를 실시하여 성격차원(E, N)이 노인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에 좀 더 중요한 변수임을 입증하였다. Shanan(1985)이 개발한 도구를 적용한 연구로서 김현진과 이귀옥(1992)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가족 환경적 변인이 노인의 성격적응요인(적극적 통합성, 의존적 수동성, 실패 과정성, 자기부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옥현(1998)은 노인의 성격유형을 적극적 통합형, 의존적 수동형, 실패적 과정형 및 자기 부정형으로 나누었다. 유경원, 박상하, 김혜숙과 정경인(2005)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Shanan(1985)의 측정척도를 수정한 다음 응답을 받아 연령에 따라 성격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외의 연구(이은경, 2002; 정윤경, 2010)에서도 노인의 성격유형은 적극적 통합형과 의존적 수동형, 실패과정형, 자기 부정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60~89세 노인을 대상으로 외향성 척도와 낙관성 척도를 사용하여 실증 분석한 장휘숙(2009)은 외향성 노인과 낙관적 노인 및 주관적 건강상태를 지닌 노인이 더 큰 행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규명하였다.

McCrae와 Costa(1987)의 성격 5요인 모델을 토대로 한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 척도의 표준화와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김선영 외, 2010)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른 연령층이나 특정 직업군을 실증 분석하고 있다. 송선희, 하대현과 최형주(2004)는 서울지역의 중학교 2, 3학년의 5요인 성격검사를 실시하여 신경증(불안, 분노, 우울), 외향성(사교성, 명랑성, 리더십, 자극추구), 지적 개방성(상상력, 심미성, 지적도전), 친화성(공감, 겸손, 도덕), 성실성(성취욕구, 책무성, 근면성)의 5개 요인에 16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격 5요인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연구(김동일 외, 2006; 하대현, 김수연, 2003)가 진행되어 왔다. 호텔직원과 외식기업 종업원의 성격특성을 분석한 연구(유희경, 김미연, 정희경, 2007; 이채은, 이진영, 2010; 전희원, 정해욱, 2010)에서도 성격 5요인을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안전성 및 신경증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경현 외(2009)는 성격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검증하면서 성격의 5요인인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개방성, 순응성 및 성실성의 측면에서 요인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성격 5요인을 적용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성격 5요인은 노인이 되어서도 나타나는 성격특성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McCrae와 Costa(1987/1997)의 성격 5요인 모델을 토대로 하고, 이를 노인에 적용하여 표준화와 타당도를 검증한 김선영 외(2010)의 연구,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선희 외(2004), 서경현 외(2009) 등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및 성실성의 측면에서 노인의 성격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노인의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노년기에 개인의 성격이 변하는 원인을 보면, 첫째, 신체

적 원인, 둘째, 과거 경험에서 오는 원인, 셋째, 사회적 활동의 축소로 인한 무력감에서 오는 원인, 넷째, 노인에 대한 사회에서의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노년기는 쇠퇴하는 시기로서 공포, 괴로움, 실망 및 분노가 유쾌한 정서보다 더 빈번하고 노인의 성격은 이기적, 자기중심적일 뿐 아니라 인색하며 권위적이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심할 경우 슬픔과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의학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노인은 자기와는 다른 타인을 잘 수용하지 못하며, 자기 생활계획을 새 시대에 맞추어 변경함에 있어 곤란을 느낀다(노항자, 2003; 윤진, 1989).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노인의 성격특성과는 부정적인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연구(김지현, 민경환, 2010; 유경원 외, 2005; 장휘숙, 2009)가 이루어져 왔는데, 성격으로 인해 우울, 죽음 불안감, 자살충동, 소외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성격특성이 자아존중감을 높이거나 긍정적인 삶의 만족도를 유발하는 요인임을 역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이 지니고 있는 성격특성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삶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이끄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수용과 자기존경,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로서, 노년기에는 성공이나 실패보다 내면적인 정서적 기제에 뿌리를 두고 환경보다는 주어진 자신의 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강승규, 2003; 이준철, 2010). 삶의 만족도란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인지적 차원에서 보면 한 개인의 삶을 자신의 기대와 욕구, 희망이나 다른 준거 집단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인 반면, 정서적 차원에서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의미한다(권중돈, 조주연, 2000). 이런 점에서 삶의 만족도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삶의 만족도로 구분되어 왔으며(김주성, 최수일, 2010),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성격특성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직업유무, 종교유무, 건강상태 및 경제활동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노인의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cCrae와 Costa(1991)는 성격의 5요인 중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이 긍정적인 만족도와 부정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만, 개방성은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정(1987)은 55세 이상의 남녀 피험자를 대상으로 성격차원검사, 노인 생활적응도 질문서, 절망감 척도, 행복감 평정척도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에서 McCrae와 Costa의 모델이 지지됨에 따라 성격차원(E,N)이 노인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에 좀 더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김현진과 이귀옥(1992)은 부산지역 노인의 경우 적극적 통합의 성격적응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데 비해 의존적 수동성과 실패 과장성은 생활만족도가 낮은 부적응을 나타내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김옥현(1998)에 의하면 순천 · 여수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성격유형 사이에 지각된 건강만이 차이가 있고,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종교, 직업 및 지각된 건강에 따라 자아통합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성격유형과 자아통합감과의 관계에서 적극적 통합형이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지혜로운 삶, 생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수용, 노령에 대한 수용, 지나온 일생에 대한 수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적극적 통합형의 노인들이 높은 자아통합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기부정형의 성격이 강할수록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민애(2001)는 입원 노인의 성격유형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에서 적극적 통합형의 성격특성을 지닌 노인이 자아통합감 형성을 통해 인생을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하였고, 차경호(2001)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성격 5요인의 효과가 자아존중감에 의해 매개됨은 물론 외향성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였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성격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김지연(2002)의 연구에서는 내향적 성격의 노인보다 외향적 성격의 노인이 자신의 삶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의 성격은 여가활동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노은이, 2004), 노인의 신경증적인 성격은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 것(이은희, 김금운, 한규석, 주리애, 2004)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경현 외(2009)는 정서적 안정성과 외향성이 삶의 만족, 주관적 행복, 긍정 및 부정 정서와 밀접한 상관이 있다고 하면서 개인의 성격이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장휘숙(2009)은 60~89세 남녀 노인들의 경우 외향적 · 낙관적인 성격과 좋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지닌 노인들이 더 큰 행복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정윤경(2010)은 요양시설 노인을 실증 조사하여 적극적 통합형 성격일수록, 실패과장형 성격이 아닐수록 시설생활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김주성과 최수일(2010)에 의하면 중 · 노년층이 지니고 있는 외향적 도전추구 라이프스타일이 긍정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으며,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김정엽, 권복순, 2007; 남행웅, 이병관, 이호열, 2009; 전영자, 박경란, 2006; 한정란, 김수현, 2004)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삶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부정적 삶의 만족도는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간에 영향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고려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문지는 노인의 성격특성에 관한 문항,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관한 문항,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노인의 성격특성은 McCrae와 Costa(1987/1997)의 성격 5요인 모델을 기초로 하고 서경현 외(2009), 김선영 외(2010), Chapman 외(2007)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을 참조하여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등의 성격에 관한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김정엽과 권복순(2007), 남행웅 외(2009), 이준철(2010)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 등에 관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삶의 만족도는 서경현 외(2009), 장휘숙(2009), 김주성과 최수일(2010)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관한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개념변수에 관한 문항은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측정을 하였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 연령, 학력, 월평균 수입, 직업유무, 종교유무, 자녀 동거여부,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 등의 총 9문항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1년 1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300부를 수거하여 결측값이 없는 총 282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18.0을 이용하였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관하여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개념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Varimax회전, 고유값 1.0 이상 요인 추출)과 신뢰성분석을 하였으며,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t*-test, ANOVA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3.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175명(62.1%)으로 여성 107명(37.9%)보다 더 많았고, 연령은 60~64세가 80명(28.4%), 65~69세가 87명(30.9%), 70~74세가 80명(28.3%), 75세 이상이 35명(12.4%)이었다. 이들의 학력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83명(29.4%), 중학교 졸업자가 75명(26.6%), 고등학교 졸업자가 103명(36.5%), 대학교 졸업 이상이 21명(7.5%)으로 중, 고등학교 졸업자가 60%이상이었다.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미만이 98명(34.8%), 100~300만원미만이 126명(44.7%), 300만원이상이 58명(20.5%)이었으며, 직업이 없는 노인이 166명(58.9%), 직업이 있는 노인이 116명(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이 148명(52.5%)으로 종교를 가진 경우 134명(47.5%)보다 약간 더 많았고, 자녀와의 동거여부에서는 함께 살지 않는다가 219명(77.7%), 함께 살고 있다는 63명(22.3%)이었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좋은 편이다가 113명(40.1%), 그저 그렇다는 114명(40.4%), 나쁜 편이다는 55명(19.5%)이 응답하였고, 경제상태는 좋은 편이다가 93명(33.0%), 그저 그렇다가 105명(37.2%), 나쁜 편이다가 84명(29.8%)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 = 282)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성별	남성	175(62.1)	직업 유무	없다	166(58.9)
	여성	107(37.9)		있다	116(41.1)
연령	60-64세	80(28.4)	종교 유무	없다	148(52.5)
	65-69세	87(30.9)		있다	134(47.5)
	70-74세	80(28.3)	자녀 동거여부	함께 살지 않는다	219(77.7)
	75세 이상	35(12.4)		함께 살고 있다	63(22.3)
학력	초등학교 졸업이하	83(29.4)	건강 상태	나쁜 편이다	55(19.5)
	중학교 졸업	75(26.6)		그저 그렇다	114(40.4)
	고등학교 졸업	103(36.5)		좋은 편이다	113(40.1)
	대학교 졸업이상	21(7.5)			
월평균 수입	100만원미만	98(34.8)	경제 상태	나쁜 편이다	84(29.8)
	100-300만원 미만	126(44.7)		그저 그렇다	105(37.2)
	300만원이상	58(20.5)		좋은 편이다	93(33.0)

〈표 2〉 성격특성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누적분산(%)	신뢰계수
개방성	나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829	4.110	16.442	.894
	나는 새로운 체험을 즐긴다	.773			
	나는 여가 생활을 즐긴다	.773			
	나는 늘 새로운 것을 생각한다	.752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732			
	나는 문화생활을 즐긴다	.693			
친화성	나는 남을 존중하는 편이다	.797	4.028	32.555	.880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759			
	나는 모든 일에 정직한 사람이다	.758			
	나는 어떤 일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한다	.714			
	나는 사람을 잘 믿는 편이다	.644			
	나는 남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지 않는다	.585			
성실성	나는 어떤 일이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746	3.092	44.923	.865
	나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한다	.728			
	나는 맡은 바 임무를 확실하게 처리한다	.661			
	나는 나 자신을 잘 통제하는 편이다	.648			
	나는 사람들을 잘 조직하고 관리한다	.587			
신경증	나는 때때로 깊은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다	.793	2.740	55.884	.781
	나는 다혈질이고 성미가 급하다	.786			
	나는 외롭거나 우울하다	.733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다	.714			
	나는 자주 긴장하고 불안하다	.696			
외향성	나는 일 할 때나 놀 때 활동적인 사람이다	.830	2.315	65.142	.798
	나는 쾌활하고 활기에 넘친다	.754			
	나는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729			

Ⅳ. 연구결과

1. 성격특성,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의 구성요인

1) 성격특성

노인의 성격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30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고유값 1.0이상인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1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체험과 여가생활, 문화생활을 즐기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는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즐기는 개방적인 성격과 관련되어 '개방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타인을 배려하고 믿는 이타적인 성격특성으로 남을 존중하거나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함은 물론 정직하고 사람을 잘 믿으며, 어떤 일이든 그대로 받아들이려 노력한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친화성'이라고 하였다. 요인 3은 어떤 일이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거나 최선을 다하며, 자신에 대한 통제력과 조직 및 관리력에 관한 문항으로서 근면, 성실, 책임감 등의 성격과 관련되어 '성실성'이라 하였고, 요인 4는 때때로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끼면서 다혈질에 성미가 급할 뿐 아니라 외롭고 우울하며 자주 긴장하거나 불안해하는 등 신경증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성격특성을 포함하여 '신경증'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5는 일을 하거나 놀 때 활동적인 편이고, 쾌활한 성격에 모임에 가서도 말을 많이 한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좋아하거나 활동적인 성격과 관련되어 '외향성'이라고 명하였다.

이들 요인 중에서 개방성에 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고, 요인의 총 변량은 65.142%였으며,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값 0.5이하를 나타낸 5문항(성실성 1문항, 신경증 1문항, 외향성 3문항)이 제거되었다. 또한 노인의 성격특성에 대한 5가지 하위요인의 신뢰계수가 0.781~0.894의 수준으로 신뢰성이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성격특성이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및 외향성의 5개 차원으로 분류된 것은 성격 5요인 모델을 제안한 McCrae와 Costa(1987, 1997)의 연구,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성격 5요인 척도의 표준화와 타당도를 검증한 김선영 외(2010)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 관한 총 6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고유치 1.0이상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표 3〉에서처럼 자신에게

〈표 3〉 자아존중감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누적분산(%)	신뢰계수
자아 존중감	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845	3.982	66.360	.897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43			
	나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	.840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832			
	나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761			
	나 자신이 훌륭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761			

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거나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고 훌륭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요인의 총 변량은 66.360%였고, 요인분석 과정에서 모든 항목이 요인값 0.5이상을 보여 제거된 항목은 없었으며, 신뢰계수가 0.897로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16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고유값 1.0이상인 2개의 요인이 도출 되었다. 요인 1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나면서 매사가 짜증스럽고 삶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하고 있는 일들이 별로 재미가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부정적 삶의 만족도' 라 하였다. 요인 2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는 것이 생각보다 좋게 느껴지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다복하며,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여전히 흥미롭고 지금도 바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등의 문항으로서 자신의 삶에 긍정적으로 만족하는 감정 상태를 포함하고 있어 '긍정적 삶의 만족도' 라 명하였다.

이들 요인 중에서 긍정적 삶의 만족도보다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설명력이 더 높았고, 요인의 총 변량은 73.104%로 모든 항목의 요인값이 0.5이상을 보여 제거된 항목이 없었으며, 신뢰계수는 0.944~0.966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 · 부정적 삶의 만족도로 나타난 것은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긍정적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다고 밝힌 김주성과 최수일(2010)의 연구와 비슷하였고, 인지적 측면에서 삶의 만족도가 부정적, 긍정적 정서경험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한 권중돈과 조주연(2000)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성격특성,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차이

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

〈표 5〉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성격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로서, 종교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개방성(t = 3.95, p < .001)에서 차이를 보여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개방

〈표 4〉 삶의 만족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분석 결과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값	누적분산(%)	신뢰계수
부정적 삶의 만족도	나는 요즘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난다	.875	5.924	37.027	.966
	나는 매사가 짜증스럽고 귀찮다	.872			
	내 삶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865			
	나는 지금하고 있는 일들이 별로 재미가 없다	.862			
	늙고 무기력해지니 사는 것이 슬프다	.861			
	매일 매일의 삶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853			
	나는 요즘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다	.819			
	내 삶을 되돌아보면 별로 이루어 놓은 일이 없다	.594			
긍정적 삶의 만족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느껴진다	.865	5.772	73.104	.944
	앞으로 내게 즐거운 일만 생길 것이다	.84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복하다	.836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흥미롭고 재미있다	.819			
	나는 현재의 전반적인 삶에 만족한다	.814			
	나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811			
	내 삶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욱 보람있다	.805			
	나는 지금도 바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768			

〈표 5〉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분석 결과

(n = 282)

구분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외향성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M*	*SD*	*t/F*
성별	남성 (n = 175)	3.40	.62	3.95***	3.59	.62	−0.09	3.52	.62	1.15	2.74	.65	−0.69	3.07	.74	−0.95
	여성 (n = 107)	3.08	.69		3.59	.68		3.43	.64		2.80	.77		3.15	.66	
연령	60-64세 (n = 80)	3.20b	.65	2.91*	3.61	.51	0.12	3.50	.52	1.31	2.88	.68	1.24	2.99	.59	1.33
	65-69세 (n = 87)	3.25ab	.59		3.61	.60		3.54	.54		2.77	.65		3.08	.70	
	70-74세 (n = 80)	3.23ab	.76		3.56	.81		3.38	.76		2.68	.75		3.20	.82	
	75세이상 (n = 35)	3.59a	.58		3.56	.60		3.59	.70		2.70	.72		3.19	.75	
학력	초졸이하 (n = 83)	3.00c	.72	10.13***	3.49	.70	2.18	3.30b	.72	4.36**	2.90	.77	1.71	3.04	.70	0.76
	중졸 (n = 75)	3.31bc	.66		3.55	.69		3.48ab	.65		2.69	.62		3.08	.80	
	고졸 (n = 103)	3.39ab	.58		3.65	.58		3.62a	.52		2.70	.72		3.12	.66	
	대졸이상 (n = 21)	3.74a	.39		3.84	.44		3.60a	.44		2.85	.42		3.30	.69	
월평균 수입	100만원미만 (n = 98)	3.07b	.63	9.66***	3.41b	.60	10.27***	3.26c	.57	18.21***	2.93a	.66	7.28**	2.97b	.63	5.07**
	100-300만원미만(n = 126)	3.34a	.71		3.59b	.67		3.51b	.61		2.76ab	.69		3.08ab	.75	
	300만원이상 (n = 58)	3.52a	.51		3.88a	.54		3.85a	.58		2.50b	.69		3.35a	.70	
직업 유무	없다 (n = 166)	3.18	.67	−2.95**	3.55	.64	−1.32	3.44	.64	−1.55	2.79	.65	0.70	2.97	.64	− 3.78***
	있다 (n = 116)	3.42	.63		3.65	.64		3.56	.61		2.73	.75		3.29	.77	
종교 유무	없다 (n = 148)	3.23	.67	−1.41	3.63	.61	1.12	3.47	.61	−0.52	2.77	.73	0.22	3.02	.73	−1.95
	있다 (n = 134)	3.34	.66		3.54	.67		3.51	.65		2.76	.66		3.19	.68	
자녀 동거 여부	함께안산다 (n = 219)	3.24	.66	−1.74	3.56	.63	−1.43	3.45	.62	−1.79	2.83	.07	2.73	3.05	.68	−2.09*
	함께산다 (n = 63)	3.41	.67		3.69	.68		3.61	.65		2.56	.64		3.26	.81	
건강 상태	나쁜 편이다 (n = 55)	2.97b	.73	14.65***	3.32b	.65	8.95***	3.27b	.62	16.89***	3.10a	.66	12.11***	2.72b	.47	12.69***
	그저 그렇다 (n = 114)	3.20ab	.63		3.56a	.63		3.35b	.60		2.81b	.63		3.09a	.70	
	좋은 편이다 (n = 113)	3.51a	.59		3.75a	.61		3.74a	.57		2.56b	.71		3.29a	.75	
경제 상태	나쁜 편이다 (n = 84)	2.98c	.72	20.19***	3.46b	.69	13.36***	3.20c	.60	18.45***	2.99a	.62	8.90***	3.00b	.07	6.48**
	그저그렇다 (n = 105)	3.26b	.58		3.45b	.62		3.49b	.60		2.76b	.64		2.99b	.06	
	좋은 편이다 (n = 93)	3.57a	.59		3.86a	.53		3.75a	.57		2.56b	.76		3.31a	.07	

*p < .05, **p < .01, ***p < .001

〈표 6〉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의 차이분석 결과

(n = 282)

구분		자아존중감			긍정적 삶의 만족도			부정적 삶의 만족도		
		M	SD	t/F	M	SD	t/F	M	SD	t/F
성별	남성(n = 175)	3.30	.690	0.29	3.21	.769	−0.20	2.28	.916	−1.01
	여성(n = 107)	3.28	.637		2.28	.916		2.40	.899	
연령	60-64세(n = 80)	3.28	.523	0.74	3.15	.674	1.15	2.41	.958	0.88
	65-69세(n = 87)	3.34	.641		3.17	.733		2.36	.817	
	70-74세(n = 80)	3.22	.764		3.26	.857		2.30	.977	
	75세이상(n = 35)	3.40	.802		3.41	.820		2.12	.859	
학력	초졸이하(n = 83)	3.07b	.648	7.26***	3.15	.778	0.83	2.59a	.882	3.75*
	중졸(n = 75)	3.28b	.771		3.17	.794		2.31ab	.927	
	고졸(n = 103)	3.40ab	.581		3.28	.758		2.18ab	.912	
	대졸이상(n = 21)	3.72a	.438		3.38	.664		2.10b	.760	
월평균 수입	100만원미만 (n = 98)	3.00c	.057	30.49***	2.97b	.692	22.93***	2.71c	.769	28.72***
	100-300만원미만 (n = 126)	3.30b	.634		3.16b	.738		2.33b	.899	
	300만원이상 (n = 58)	3.78a	.618		3.76a	.690		2.33a	.777	
직업유무	없다(n = 166)	3.17	.650	−3.79***	3.17	.753	−1.28	2.43	.891	2.26*
	있다(n = 116)	3.47	.660		3.29	.783		2.18	.921	
종교유무	없다(n = 148)	3.25	.642	−1.26	3.20	.751	−0.41	2.45	.988	2.48*
	있다(n = 134)	3.35	.696		3.24	.785		2.19	.796	
자녀 동거여부	함께 안산다 (n = 219)	3.23	.623	−2.93**	3.16	.746	−2.38*	2.43	.909	3.66***
	함께 산다 (n = 63)	3.51	.777		3.42	.809		1.97	.821	
건강상태	나쁜 편이다 (n = 55)	2.99b	.505	29.62***	2.85b	.601	34.73***	2.72a	.718	28.51***
	그저 그렇다 (n = 114)	3.11b	.586		2.99b	.658		2.59a	.850	
	좋은 편이다 (n = 113)	3.63a	.676		3.63a	.754		1.87b	.865	
경제상태	나쁜 편이다 (n = 84)	2.97b	.562	36.66***	2.77c	.664	63.70***	2.78a	.791	34.82***
	그저 그렇다 (n = 105)	3.17b	615		3.06b	.632		2.45b	.787	
	좋은 편이다 (n = 93)	3.71a	.637		3.81a	.618		1.78c	.871	

*p < .05, **p < .01, ***p < .001

적인 성향이었고, 75세 이상이 60~64세에 비해 개방성(F = 2.91, p < .01)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 75세 이상의 노인들이 더 개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학력별로는 개방성(F = 10.13, p < .001), 성실성(F = 4.36, p < .01)에서 차이를 보여 초등학교 졸업이하보다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평균값이 더 높았으며, 월평균 수입의 경우 모든 성격특성에서 차이를 보여 100만원 미만에 비해 300만원이상에서 개방성과 친화성, 성실성 및 외향성의 평균값이 더 높은 반면, 신경증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개방성(t = −2.95, p < .01)과 외향성(t = −3.78, p < .001)에서 차이가 나타나 직업이 있는 노인들이 없는 경우보다 더 개방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자녀동거여부에서는 외향성(t = −2.09, p < .05)에 차이를 보여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더 외향적인 성향이었다. 또한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 따라 모든 성격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은 노인들이 나쁜 노인들보다 개방성과 친화성, 성실성 및 외향성의 평균값이 더 높았지만 신경증은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직업이 있고, 자녀와 함께 살며, 건강과 경제 상태가 좋은 노인일수록 보다 개방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친화적인 성격에 성실하면서 외향성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 노인의 성격특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 단계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1]	.152	2.975**	.066	1.474
	연령	.146	2.726**	.067	1.412
	학력	.113	1.851	.048	.905
	월평균수입	.215	3.625***	.133	2.597*
	직업유무[2]	−.178	−3.551***	−.111	−2.571*
	종교유무[3]	−.024	−.478	−.021	−.489
	자녀동거여부[4]	−.104	−2.080*	−.063	−1.463
	건강상태	.193	3.464**	.090	1.815
	경제상태	.224	3.599***	.147	2.755**
성격특성	개방성			.221	4.785***
	친화성			.285	6.659***
	성실성			.281	6.525***
	신경증			−.034	−.767
	외향성			.228	5.176***
F		16.952***		23.907***	
R^2		.359		.533	
ΔR^2		.174			

[1]성별(남성 = 0, 여성 = 1), [2]직업유무(없다 = 0, 있다 = 1), [3]종교유무(없다 = 0, 있다 = 1), [4]자녀동거 여부(함께 안산다 = 0, 함께 산다 = 1)
*p 〈 .05, **p 〈 .01, ***p 〈 .001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의 차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과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자아존중감(F = 7.26, p 〈 .001)과 부정적 삶의 만족도(F = 3.75, p 〈 .05)에서 차이를 보여 대학교 졸업 이상에 비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닌 노인들이 자아존중감이 더 낮은 반면 부정적 삶의 만족도는 더 높은 경향이었고, 직업유무에서도 자아존중감(t = −3.79, p 〈 .001)과 부정적 삶의 만족도(t = 2.26, p 〈 .05)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업을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으므로 자신을 존중하면서 가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인이 되어서도 직업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종교가 있는 노인들이 없는 노인들에 비해 부정적인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낮추는데 있어서는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월평균 수입과 자녀 동거여부,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삶의 만족도, 부정적 삶의 만족도 모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평균 수입 100만원미만에 비해 100만원이상인 노인들이, 자녀와 살지 않는 경우보다 함께 사는 노인들이, 그리고 건강과 경제상태가 나쁜 경우보다 좋은 노인들이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삶의 만족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반면, 부정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더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수입이 좋고, 자녀와 함께 살며, 건강과 경제 상태가 좋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자아존중감은 물론 긍정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노인의 성격특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성격특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성격특성 요인인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외향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고, 1단계에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성별(β = .152 t = 2.975, p 〈 .01), 연령(β = .146 t = 2.726 p 〈 .01), 월평균 수입(β = .215 t = 2.726 p 〈 .001), 직업유무(β = −.178 t = −3.551, p 〈 .001), 자녀동거여부(β = −.104 t = −2.080, p 〈 .05), 건강상태(β = .193 t = 3.464, p 〈 .01), 경제상태(β = .224, t = 3.599, p 〈 .001)가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월평균 수입이 높고 직업이 있으면서, 자녀와 함께 살고, 건강과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35.9%였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함께 성격특성인 개방성(β = .221, t = 4.785, p < .001), 친화성(β = .285, t = 6.659, p < 0.001), 성실성(β = .281, t = 6.525, p < .001), 외향성(β = .228, t = 5.176, p < 0.01)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년기에 어떤 일이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기 통제력이 강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과 체험을 즐기며, 다른 사람과 친화적이면서 외향적인 성격을 지닌 노인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55.6%로 1단계보다 19.7%(ΔR^2 = .197)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정서적 안정성과 외향성이 긍정적 정서와 상관이 있다고 한 서경현 외(2009)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4. 노인의 성격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 노인의 성격특성이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성격특성이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1단계에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연령(β = −.200 t = −3.674, p < .001), 월평균수입(β = −.212 t = −3.684, p < .001), 종교유무(β = .103 t = 2.042, p < .05), 경제상태(β = −.232 t = −3.851, p < .001)가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연령이 높으면서, 수입이 낮고, 종교가 없으며,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며, 매사가 짜증스럽고, 삶이 따분하며,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은 부정적 삶이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34.2%였다.

2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함께 성격특성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연령(β = −.136 t = −2.820, p < .01), 월평균수입(β = −.143 t = −2.857, p < .01), 경제상태(β = −.186 t = −3.415, p <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에서는 신경증(β = .481 t = 10.583, p < .001), 외향성(β = −.096 t = −2.149, p < .05)이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연령이 높으면서 월평균 수입이 낮고, 경제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성격적으로 죄의식을 느끼거나, 외롭고 우울하며, 자주 긴장하고 불안을 느끼는 노인과 활동적이지 못하고, 활기가 없으며, 모임에서 말을 하지 않는 노인일수록 부정적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기부정형의 성격이 강한 노인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된 김옥현(1998)의 연구와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부정적 삶의 만족감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54.2%로 1단계보다 20.0%(ΔR^2 = .200) 증가하였다.

2) 노인의 성격특성이 긍정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 성격특성이 긍정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성격특성의 요인인

〈표 8〉 노인의 성격특성이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 단계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1]	−.062	−1.207	−.031	−.693
	연령	−.200	−3.674***	−.136	−2.820**
	학력	−.046	−.740	−.058	−1.088
	월평균수입	−.212	−3.684**	−.143	−2.857**
	직업유무[2]	.085	1.670	.053	1.201
	종교유무[3]	.103	2.042*	.093	2.161*
	자녀동거여부[4]	.139	2.727**	.054	1.245
	건강상태	−.197	−3.445**	−.078	−1.538
	경제상태	−.232	−3.851***	−.186	−3.415**
성격특성	개방성			.007	.155
	친화성			−.035	−.810
	성실성			−.058	−1.312
	신경증			.481	10.583***
	외향성			−.096	−2.149*
F		15.651***		22.487***	
R^2		.342		.542	
ΔR^2		.200			

[1]성별(남성 = 0, 여성 = 1), [2]직업유무(없다 = 0, 있다 = 1), [3]종교유무(없다 = 0, 있다 = 1), [4]자녀동거 여부(함께 안산다 = 0, 함께 산다 = 1)
*p < .05, **p < .01, ***p < .001

〈표 9〉 노인의 성격특성이 긍정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 단계		1단계		2단계	
		β	t	β	t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1]	.121	2.447*	.028	.673
	연령	.164	3.163**	.058	1.296
	학력	−.093	−1.584	−.173	−3.474**
	월평균수입	.142	2.462*	.063	1.306
	직업유무[2]	−.067	−1.380	.006	.149
	종교유무[3]	−.006	−.115	−.001	−.020
	자녀동거여부[4]	−.074	−1.528	−.019	−.474
	건강상태	.203	3.749***	.079	1.689
	경제상태	.434	7.198***	.351	6.963***
성격특성	개방성			.281	6.438***
	친화성			.315	7.792***
	성실성			.205	5.049***
	신경증			−.099	−2.347*
	외향성			.244	5.862***
F		19.961***		29.164***	
R^2		.398		.605	
ΔR^2		.207			

[1]성별(남성 = 0, 여성 = 1), [2]직업유무(없다 = 0, 있다 = 1), [3]종교유무(없다 = 0, 있다 = 1), [4]자녀동거 여부(함께 안산다 = 0, 함께 산다 = 1)
*p 〈 .05, **p 〈 .01, ***p 〈 .001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외향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긍정적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에서처럼 1단계에서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성별(β = .121 t = 2.447, p 〈 .05), 연령(β = .164 t = 3.163, p 〈 .01), 월평균 수입(β = .142 t = 2.462, p 〈 .05), 건강상태(β = .203 t = 3.749, p 〈 001), 경제상태(β = .434 t = 7.198, p 〈 .001)가 긍정적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수입이 높고, 건강과 경제 상태가 좋을수록 사는 것이 즐거우며,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흥미롭고 재미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전체 설명력은 39.8%였다

2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성격특성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에서는 학력(β = −.173 t = −3.474, p 〈 .01), 경제상태((β = .351 t = 6.963, p 〈 .001)가 긍정적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격특성의 요인 중에서 개방성(β = .281 t = 6.438, p 〈 .001), 친화성(β = .315 t = 7.792, p 〈 .001), 성실성(β = .205 t = 5.047), 외향성(β = .244 t = 5.862)이 긍정적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경증(β = −.099 t = −2.347 p 〈 .05)은 긍정적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후에 학력이 높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과 성격특성으로 정직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여가생활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쾌활한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외롭고 우울하거나 자주 긴장하고 불안한 노인은 긍정적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60.5%로서 1단계보다 20.7%(ΔR^2 = .207)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적인 성격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고 밝힌 차경호(2001)와 김지연(2002)의 연구, 적극적 통합형의 성격을 지닌 노인이 인생을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박민애(2001)의 연구, 그리고 외향적 · 낙관적인 성격의 노인들이 더 큰 행복을 경험한다는 장휘숙(2009)의 연구와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남을 존중하고 타인과 친화적일 뿐 아니라 새로운 일과 체험에 대한 도전을 즐기면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외향적인 성격을 지닌 노인일수록 긍정적인 삶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한 개인이 지닌 성격특성이 노후의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격특성은 다른 특성들에 비해 그다지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떤 성격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

로 노인의 성격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행복한 노후의 삶을 설계하거나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개념변인들이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노인의 성격특성에 관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이 Shanan(1985)의 분류를 기초로 이루어져 왔으며, McCrae와 Costa(1987, 1997)의 성격 5요인 모델을 적용한 연구는 김선영 외(2010)를 제외하고 청소년이나 대학생, 특정 직업군을 실증 분석하여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McCrae와 Costa(1987, 1997)의 성격 5요인 척도를 토대로 하여 노인의 성격특성이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및 외향성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노인들은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고 친화적일 뿐 아니라 근면하면서 솔직한 사교성 있는 긍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다혈질에 우울하고 불안정하며 신경질적인 부정적인 성격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성격특성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되어 주관적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Costa & McCrae, 1980)라는 점에서 노인의 성격특성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복지분야 연구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생활 만족도를 다차원적인 개념에서 분류한 김주성과 최수일(2010)에 따르면 긍정적 삶의 만족도가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비해 더 높은 설명력을 보인 반면, 본 연구는 긍정적 삶의 만족도보다 부정적 삶의 만족도의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나 노인들은 행복한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정서를 보다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와 차이가 나타난 것은 김주성과 최수일(2010)의 연구가 서울 수도권 지역의 40대 이상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 강원도 지역의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실증 분석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이 행복감과 안녕, 성공적인 노후 등의 긍정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본 연구는 노인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인지할 수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정서를 동시에 파악한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노인들이 지니고 있는 성격특성 중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및 외향성이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로 나타났으므로 보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성격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이 요구된다. 즉, 노인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타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이웃이나 친구, 가족들과 활발한 교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가생활과 문화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고립되어 부정적인 성격을 갖지 않도록 가족 구성원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노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노인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정보 시대에 맞게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하고, 노인대학이나 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여 노인들이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적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신경증은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부정적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김옥현(1998), 이은희 외(2004)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였다. 다시 말해서 신경증적인 경향성이 강할수록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가 더 높아지고 삶에 대해서도 불만족하게 되는 경향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오랜 기간을 통해 형성된 부정적인 성향을 짧은 기간 동안에 긍정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겠지만, 긍정적인 성격을 지닌 노인보다는 소외되거나 부정적인 성격을 지닌 노인에 대한 가족 구성원과 사회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삶에 대한 만족을 높이는 반면 불만족을 낮추는 요소였으므로 노인들이 자신을 소중히 하고 자기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촉구되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노후 생활 적응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노인들의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고, 특히 직업이 있거나 건강 및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능동적인 성격에 긍정적인 정서가 높아지는데 비해 신경증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는 더 낮아지고 있었다. 따라서 노인이 되어서도 직업을 갖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재취업 교육을 받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효과적이며, 정책적인 차원에서 노인의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자원봉사활동, 창업지원책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 스스로가 규칙적인 생활,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으로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관심도 요구되며, 지역사회에서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하는 등 건강한 노후의 삶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첫째, 강원도에 거주를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노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별 차이를 분석한다면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보다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부정적 삶의 만족도에 대

한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노인의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만을 고려하였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노년기의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사회적 활동 등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강승규(2003). **나를 존중하는 삶.** 서울: 학지사.

권중돈, 조주연(2000).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김동일, 홍성두, 인효연(2006). Big Five 성격 요인에 기초한 청소년 성격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열린교육연구, 14**(1), 289-305.

김선영, 김재민, 유준안, 배경열, 김성완, 양수진 외(2010). 노인에서 한국판 성격 5요인 척도의 표준화 및 타당도. **생물정신의학, 17**(1), 15-25.

김옥현(1998). 노인의 성격유형, 자아통합감과 노화에 대한 지각과의 관계 연구. **순천청암대학 논문집, 22**(2), 35-59.

김정엽, 권복순(2007). 노인의 생활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37**, 111-130.

김주성, 최수일(2010).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3), 97-119.

김지연(2002). 자녀와의 관계와 성격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현, 민경환(2010). 노년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 대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1-27.

김현진, 이귀옥(1992). 노인의 성격적응요인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2), 171-187.

남행웅, 이병관, 이호열(2009). 한국무용 참여여성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인문사회과학, 48**(4), 55-63.

노은이(2004).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여가참여, 성격과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3**(6), 799-808.

노항자(2003), 노인의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의 관련요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성격유형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민애(2001). 입원노인의 성격유형 및 건강상태와 자아통합감과의 관계.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경현, 김정호, 유제민(2009). 성격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Big 5 성격요인과 BAS/BIS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69-186.

서희숙, 한영현(2006). 재가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 및 수면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연구, 15**, 159-170.

송선희, 하대현, 최형주(2004). 내, 외재 동기유형과 Big-five 성격요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0**(1), 125-150.

유경원, 박상하, 김혜숙, 정경인(2005). 노인의 성격과 죽음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조선대학교 의대논문집, 30**(1), 64-72.

유희경, 김미연, 정희경(2007). 외식기업 종업원의 Big 5 성격요인, 조직지원인식과 고객성과의 관계분석. **호텔경영학연구, 16**(4), 201-219.

유희정(1987). 노인의 성격특성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외-내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을 중심으로. **한국임상심리학회지, 6**(1), 1-8.

윤진(1989). **성인 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이은경(2002). 노인의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 내외통제성 및 대처방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희, 김금운, 한규석, 주리애(2004). 노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생성감의 역할. **한국노년학, 24**(3), 131-152.

이준철(2010). 무용전공자가 신체적 자기지각과 자아존중감이 자기관리를 통한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채은, 이진영(2010). 호텔직원의 Big 5 성격요인, 직무몰입 및 고객지향성간의 영향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7), 386-395.

장휘숙(2009). 한국 노인의 주관적 건강과 성격특성, 행복 및 죽음태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2), 23-40.

전영자, 박경란(2006). 노인의 종교성,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5**(2), 239-249.

전희원, 정해욱(2010). 호텔종사원의 Big 5 성격요인, 집단응집력, 고객지향성과의 영향관계. **관광연구, 25**(2), 437-458.

정윤경(2010). 요양시설노인의 성격유형별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시설생활만족정도. 대구카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경호(2001).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삶의 만족도. **청소년상담연구, 9**(1), 7-26.

하대현, 김수연(2003). 5요인 성격검사의 타당화 연구. **사회교육과학연구, 7**(1), 41-68.

한정란, 김수현(2004). 농촌 남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과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6**, 91-118.

Block, J.(1995). A contrarian view of the five-factor approach to personality descrip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187-215.

Chapman, B. P., Duberstein, P., & Lyness, J. M.(2007). Personality traits, education, and hea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 primary care patients.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2*(6), 343-352.

Costa, P. T. Jr., & McCrae, R. R.(1980). Still stable after all these years: Personality as a key to some issues in adulthood and old age. In Baltes, P. B., & Brim, O. G. Jr. (eds.),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 pp. 65-102). New York: Academic Press.

DeRaad, B., & SzirmAk, S.(1994). The search for the "Big Five" in a non-Indo-European language: The hungarian trait structure and its relationship to the EPQ and the PTS. *Europea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44*, 17-26.

Jeon, G, Jang, S., Rhee, S., Kawachi, I., & Cho, S.(2007). Gander differences in correlates of mental health among elderly Koreans. *Journal of Gerontology, 62B*(5), 323-329.

Lynam, D. R., & Widiger, T. A.(2001). Using the five-factor model to represent the DSM-IV personality disorders: An expert consensus approac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 401-412.

McCrae, R. R., & Costa, P. T. Jr.(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81-90.

McCrae, R. R., & Costa, P. T. Jr.(1991). Adding liebe und arboit: The full five factor model and well-being. *Personal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227-232.

McCrae, R. R., & Costa, P. T. Jr.(1997). Personality trait structure as a human universal. *American Psychologist, 52*(5), 509-516.

Miller, J. D., & Lynam, D. R.(2003). Psychopathy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1*, 168-178.

Neugarten, B. L.(1968). Adult personality: Toward a psychology of life cycle. In Neugarten, B. L. (eds.), *Middle age and aging* (pp. 137-14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amuel, D. B., & Widiger, T. A.(2008).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ive-factor model and DSM-IV-TR personality disorders: A facet level 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8), 1326-1342.

Saulsman L. M., & Page, A. C.(2004). The five-factor model and personality disorder empirical literature: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8), 1055-1085.

Shanan, J.(1985). *Personality types and culture in later adulthood.* Basel, Switzerland: Karger.

접 수 일 : 2011년 5월 19일
심사시작일 : 2011년 6월 3일
게재확정일 : 2011년 7월 21일